

2000-10-5

여협, 올해의 여성상 등 선정 김강자서장 홀트여사 박영숙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제37회 전국여성대회를 맞아 시상식을 갖게될 '올해의 여성상' 등 '용신 봉사상', '여성지도자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

'제16회 올해의 여성상'엔 미성년자 매매춘 근절에 앞장서온 김강자 중앙경찰서장, 한국고아의 해외 입양과 장애인 복지에 헌신했던 홀트국제아동복지재단 설립자 고 버서 홀트 여사가 '제36회 용신봉사상' 그리고 소외계층 봉사단체인 사랑의 친구들 박영숙 총재는 '제2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김서장은 미성년자 성폭력 방지를 위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단행, 뿌리깊은 사회병폐를 척결하는데 공헌한 점, 고 홀트여사는 기독교적 사랑으로 한국의 고아,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복지 사업을 펴온 점, 박총재는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겸임하며 미래지향적 여성운동을 이끌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밖에 여협은 사회 각 분야 최초 여성진출을

기록한 인물에게 주는 '2000년 여성1호 기념패' 수상자로 첫 여성철도기관사 강은옥씨, 첫 여성 수사사무원 김정옥(서울지검특수부)씨, 첫 여성사관학교 대대장 남미영(공사), 첫 여성공기업 대변인 박현숙(자산관리공사)씨, 남녀공학대학 첫 여성총학생회장 정나리(연세대)씨를 선정했다.

유일한 자치단체장상으로 공직사회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제주도 우근민 도지사에게 '2000년 우수지방자치단체 감사패'를 수여한다. 시상식은 6일 오전 10시 이화여고내 류관순 기념관에서 개최된다.



故 홀트 여사



김강자 서장



박영숙 총재

지방분권화, 여성운동 역할 강조

여성정책 연구소, 6일 제3회 부산여성포럼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소장 김해자)는 제3회 부산여성포럼을 10월 6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방분권화와 지역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민선자치 5년을 맞아 지방화 시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산의 지역발전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자리다.

박인호 부산을 가꾸는 모임 회장이 '지방분권화와 지역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전상수 국제신문 논설고문의 사회로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도 마련',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

구위원이 '분권화와 NGO운동의 방향', 김귀순 부산외국어대교수가 '분권화와 지역격차 개선방안', 허옥경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이 '분권화와 지역공동

체 활동', 송숙희 사상구의회 의원이 '분권화와 지역여성운동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있다.

송의원은 "지방분권의 당사자인 지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 시민 등의 몫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여성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여성 인재의 발굴, 육성, 자생력있는 지역단체활동, 지방자치에의 적극적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차세대 여성리더 다 모이세요"

부산여협, 오는 27~28일 여대생 캠프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묘)는 오는 27, 28일 이틀간 해운대 한국콘도에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를 연다.

대통령직속 여성특위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여협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주체가 되어 각계의 여성차별적 요소로 타파해나가기도록 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부산지역 여대생 6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여대생 캠프는 이달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참가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27일 오전 11시 등록이후 오후 1시에 개회식을 갖고 동서대 박동순 총장의 '21세기 사회의 특징과 여성의 역할'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열릴 예정.

강의내용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리더쉽 개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대표성, 여성지도자와의 대화, 의사행방방법 및 토론기술, 국제사회에서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매너강의-여성지도자와 이미지 만들기 등 총 6강까지 마련돼 있다.

학생들이 직접 회의진행과 토의방법을 적용 실습해보고 주제별 개인의 의견을 개진토록하는 분임토의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57-0057

≡일구일침≡

쇠창살에 갇힌 매매춘 현장

"날고싶다. 훨훨 새가되어 꼭 막힌곳을 벗어나... 배란다 중앙에 있는 새장의 외로운 새 한마리 날 보는 것 같았다."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을 친다. 그러나 항상 제자리. 죽고싶다. 남자, 남자가 싫어진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번만은 꼭." "너무나 집에가고 싶다. 가족들이 보고싶다. 살고싶다."

그토록 자유로운 몸이 되길 갈망하던 어느 매매춘업소 여성의 주검옆에 타다만 일기장에는 구구절절 외로움과 고통이 드리운 어두운 생활이 낱알이 기록돼 있었다.

우리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매매춘업소의 끔찍한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한편의 일기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락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노력으로 많이 정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공공연하게 매매춘은 이뤄지고 있다. 그 억울한 피해의 현장에서 빗더미에, 폭행에, 감금에 눌려 죽어가는 또다른 여성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달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 화재사건으로 윤락녀 5명이 화재현장에서 시커먼 주검으로 발견되기까지 잠시 매매춘 현장의 인권유린을 세인들은 잊고있었던 것은 아닐까. 감금되다시피 밖으로 잠겨진 조금만 방, 두꺼운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으로는 감히 탈출할 수도 없는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20대 초반 매춘여성들의 주검을 두고 악덕업주만 구속시킨다고 될 일은 아니다.

경찰과 보이지 않는 연계고리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오는 업소가 있는가하면 허가받은 업소조차 매춘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는 별반 차이가 없고보면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하루 많게는 열댓명의 손님을 치러야 하는 통에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화대는 절반이상 가로채여 빛만 늘어가면서도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늪같은 매매춘 업소, 부산'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곳곳에 음성적으로 이뤄지고있는 매매춘의 지도단속과 정화활동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매매춘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인신매매, 감금 갈취, 폭행 등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적발해 내 단 한명의 피해여성도 없도록 해야할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매춘'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사회의 '필요악'이 아닌 '절대악'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민변의 배금자 변호사는 "국가가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감독에 소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성계와 함께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청원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더라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행법이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보장할 수 없는 제도라면 보다 힘과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타당한 법안 마련에 온 국민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피해여성들은 다름아닌 나의 누이, 자매,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순희 편집장

부산여성신문 The Pusan Women's News

1999. 4. 1 창간 1년 구독료 3만원(1부 전원)

회장 : 윤원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윤귀남 · 하계순

600-074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골든오피스텔 612호

인쇄 : 소문당 인쇄소

편집 · 광고부 : (051)256-3181~2

FAX (051)246-3842

업무부 : 254-8568~9

E-mail : pusanwn@chollian.net

지사 : 사상지국 (051)305-0644 FAX:(051)301-623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